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맑은 고을-

장르: 드라마/판타지

주제: 청주의 전설과 세시풍속.

해제: 청주의 유명한 곳의 전설과 청주의 곳곳에 남아있는 세시풍속을 만화로 각색하여 청주의 옛것을 되살리려는 의미를 가지고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옛이야기를 만화로 써내려서 다시 한 번 청주의 볼 것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로 글을 썼습니다.

전개형식: 청주의 있는 지명들과 특색있는 세시풍속을 즐기는 청주사람들의 모습을 보이는 옴니버스 형식.

줄거리:

시작	동물들과 돌과 바람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석봉. 그러나 갑자기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에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어머니의 권유로 인해 청주로 여행을 떠난다.	
전설편	까치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 원조를 복수하기 위해 이를 갈은 호랑이 구영. 때가 되자 복수를 하려 하고 그것을 알게 된 하얀까치는 석봉과 함께 원조를 도와준다. 도움을 받은 원조는 석봉과 까치에게 고마워하며 자신을 도와준 이곳의 명을 까치내로 지어줄 것을 부탁한다.
	과상미	길은 안개가 열린 마을. 길을 잃은 미상은 다섯 명의 무사를 보게 된다. 현란한 칼솜씨와 함께 활의 시위로 석봉은 순간 겁을 먹어 기절을 하게 되고 눈을 뜨니 보부상들이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다. 다섯 명의 무사를 밝히기로 한 보부상과 석봉. 그러면서 우연히 다섯 명의 무사의 묘를 발견하고 제를 지내니 산의 안개가 걷히고 그 산의 광경이 너무나 멋져

		모두들 백봉산을 과상미로 바꾼다.
	당고개	매서운 바람이 불고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한 석봉. 석봉은 그 여인과 함께 어떤 집에 들어가려 했지만 주인은 매몰차게 거절하였고, 할 수 없이 다른 집의 문을 두들기니 노부부가 정성껏 석봉과 여인을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여인이 낫자 여인은 선녀가 되어 노부부에게 감사를 표한다. 놀란 석봉은 잠에서 깨고 눈을 뜨니 뒤에 조그마한 당이 세워져 있었다.

전설편	우암산	길을 가던 석봉은 한 산의 정기가 사라졌다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여 그 산을 향하여 길을 걷는다. 그곳에는 눈먼 한 장님이 바위위에서 앉고 있었는데 산의 꽃말을 보고 기뻐하여 가묘를 지었는데 그곳에서 산신이 피를 흘리고 나타나 사라졌다고 한다. 가보니 과연 검은돌이 있었고 그 돌에 손을 데니 머리의 피를 흘리고 있는 우두장군이 있었다. 그는 인간의 욕심에 대해 회의를 느끼며 인간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하며, 석봉은 인간의 욕심이 과하면 어떻게 되는지 느끼게 되었다.
	명암약수	물이 다 떨어져 갈증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하던 석봉. 그러다가 발을 헛딛어서 구르게 된다. 눈을 뜨니 아무도 살지 않는 마을에 한 여인이 혼자서 살고 있었다. 주변에는 호랑이와 늑대가 많았지만 친한 듯 서로 물을 마시며 같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병에 걸려 죽기 직전까지 갔었던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가족들이 찾아와 여인을 데리고 갔다.
	범무굴	길을 가던 도중 호랑이가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신기하게 지나간 석봉. 그러다가 호랑이에게 잡혀 같이 춤을 추면서 같이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면서 여긴 자기만 아는 곳이라고 하였으며, 인간이 물을 찾지 못해 떠나는 모습을 보며 어리석다고 하였으며, 꽤나 외로워한다. 석봉은 집터를 찾으려던 사람을 만나 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고 사람은 호랑이와 함께 춤을 추면서 친구가 된다.
	밤고개	밤을 먹으면서 가고 있는 도중에 꽤 고민에

		<p>빠져있는 한 무사 오랑을 발견하게 된다.</p> <p>꽤 소심하고 겁이 많은 그에게 내려진 것은 원의를 살해하라는 명을 받들게 되고 죽이는 것을 어려워하던 오랑은 석봉에게 얻은 밤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밤을 들고 온다. 그 밤을 먹으면서 하루를 보낸 오랑은 마지막에 죽이려고 하자 죽이지 말라는 명리 내려지고 오랑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서 된다고 안심한다.</p>
--	--	---

-까치내-

#1

깊은 산 골. 붓을 인중에 끼놓은 채.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

석봉: 아냐!(종이를 뒤로 집어던진다.)

석봉의 어머니가 들어온다.

#2

어머니: 석봉아~.

석봉: (반갑게 뒤를 돌아보며)어머니! (표정 어두워지며)헉.

칼을 들고 서있는 어머니. 살기가 가득하다.

어머니: 당장 이 방 치우지 못할까?

석봉: 네! 당장 치울게요.

#3

무릎 꿇고 서 있는. 석봉. 앞에 어머니는 떡을 찢고 있다.

어머니: 글이 안 써진다고?

석봉: (시무룩한채)네.

어머니 떡을 강하게 내리친다, 석봉 깜짝 놀란다.

석봉: 다시 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어머니: 석봉아. 청주에 가보지 않으련?

전설편	장자늬	석봉은 바위들과 바람을 통해 신의 분노로 인하여 이 마을에 커다란 홍수가 닥치고 사람들이 모두 돌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석봉은 이 사실을 알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으나 사람들은 모두 미친 사람 취급을 하였으며, 가장 큰 부잣집에 찾아갔지만 사기라면서 오히려 똥물을 뒤집어쓴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그 집 며느리가 석봉에게 선처를 하자 석봉은 재앙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러나 며느리는 홍수는 피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걱정이 되어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돌이 되어버린다.
	애기바위	천둥번개와 비가 거세게 내리는 날. 석봉은 비를 맞으며 산을 올라가다가 정과 망치를 들고 돌을 조각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고 깜짝 놀란다. 그녀는 아기를 가지기 위해 꿈에서 꿈대로 조각을 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몸도 성하지 않고 그러한 모습에 대해 안쓰러워하고 석봉은 그 조각난 바위와 이야기를 한다. 원래 산신이 살고 있었던 집이었던 바위. 그러나 악귀에 의해서 바위는 주인을 잃었다고 한다. 석봉은 여인에게 밥을 갖다주는 역할을 하였고 여인의 일취월장하는 실력에 놀란다. 바로 그 때 두 산신이 내려와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를 한다. 여인은 첫 산신의 말을 듣고 백일을 채우고 석봉과 함께 내려가 악귀를 물리치고 산신의 힘을 찾게 해주는데 도와준다.
	용개들	마을에 도착한 석봉은 그곳에서 먼 친척인 란을 만난다. 란은 활을 무척이나 잘 쏘았는데 호숫가로 놀러갔었는데 거기에서 산신이 나타나 자기가 내일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무기가 방해하려고하니 도와달라고 청한다. 그 말을 들은 란은 석봉과 함께 이무기를 무찌르기로 하고 석봉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이무기의 역점을 알아내고 란은 그 약점을 쏘아 이무기를 무찌르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도와준다.
결말	그 외에도 석봉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청주지방의 세시풍속과 함께 1년을 지낸다. 그렇게 되면서 청주사람들의 모습과 청주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고 이야기가 안 써지는 부진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데 큰 도움이 된 청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자신의 집으로 향한다.	

석봉: 예?

석봉: 그래서 왔는데…….

장승 둘이 석봉을 노려보고 있다.

석봉: (장승을 바라보며)……. 여기서 뭘 어찌란 거지? 마을로 들어간다.

#5

어두운 밤. 한옥 방 하나의 불이 흰하다. 그 방 안에 있는 두 사람.

연제: 구영아.

구영: 예, 스승님.

연제: 정말 꼭 그래야 하느냐?

구영: 제 뜻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연제: 복수보다 용서가 더 값진 것을…….

구영: 그럼 나가보겠습니다.

#6

바깥. 연제의 눈은 사람의 눈이 아닌 짐승의 눈이다.

원조: (반갑게 손을 흔들며)어이!

#7

구영: (웃으며)내일, 한양으로 간다며?

원조: (의기양양한 채)응. 반드시 급제해서 스승님의 자랑거리가 될 거야.

구영: 넌 할 수 있을 거야.

원조: (구영의 어깨를 치며)하하하. 고마워.

구영: 청주를 통해서 가겠네.

원조: 응. 거기가 제일 빠르잖아. 너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8

구영: 난 괜찮아. 장원급제해라.

원조: 응!(손을 흔들며)그럼 나중에 보자고!

구영: (짐승의 눈으로 보면서)그래. 나중에 보자고.

#9

하얀 까치가 시끄럽게 울고 있다. 석봉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하얀까치를 보고 놀라며.

석봉: 우와! 하얀 까치는 처음 보네.

까치: 뭐야? 인간이잖아?

석봉: 근데 왜 울고 있는 거야?

까치: 응?(까치 석봉의 머리 위에 올라타며)너 내가 무슨 말 하는 지 알아?

석봉: (멋쩍은 듯 얼굴을 붉으며)뵤, 어렸을 때부터 들을 줄 알았어.

까치: 그렇구나! 있잖아. 내 부탁 좀 들어주지 않을까?

#10

저잣거리를 걸어가는 원조. 허기가 진 듯 배를 움켜지고 있다.

원조: 아~ 배고프네. (맛있는 냄새가 코를 자극하며)응?

떡을 팔고 있는 떡집. 원조 바로 떡집 앞으로 간다.

원조: 떡하나 주세요.

상인: 예~ 여기 있습니다. (손을 내밀며)일전이유.

원조: 감사합니다.

상인: (고개를 숙인 채 웃으면서)뵤. 별 말씀을 잘 드시오.

#11

떡을 맛있게 먹고 있는 원조. 갑자기 두근거린다.

원조: 어라?

힘없이 쓰러지는 원조. 뒤에 서있는 누군가.

#12

기다란 창을 들고 있는 원조. 그리고 그 밑 함정에 빠져 있는 호랑이. 원조는 호랑이를 향해 창을 내리 찌른다.

꿈에서 깨는 원조. 그러나 온 몸에 고통이 밀려온다.

#13

원조: 꼬아아악.

석봉: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원조: 누구시죠?

석봉: 독에 감염되어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사흘 안에 죽고 말아요.

원조: 사. 사흘(피를 토한다.)제발 살려주십시오.

석봉: 한 번 노력해보죠.

#14

문으로 나오는 석봉. 까치가 앞에 기다리고 있다.

까치: 어때?

석봉: 심각해. 정말로 괜찮겠어?

까치: 어찌겠어. 이게 내 운명인걸. 그치만 알겠지?

석봉: 응. 신세 좀 지겠습니다.

사냥꾼: 어이구 신경쓰지 마세유.

#15

늑두가 뿌려져 있는 땅 위에 까치가 서있고 풀숲 사이에서 호랑이가 나온다.

호랑이: 그냥 조용히 사라진다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까치: 그럴 수 없는 걸. 그 사람은 여기서 죽어선 안 될 인물이야.

호랑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

까치에게 뛰어드는 호랑이.

#16

괴로워하는 원조.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문을 지키고 있는 구영.

그 뒤에 석봉이 서있다.

구영: 저 자는 내 아버지를 죽인 자다.

석봉: 당신 아버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축과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저 사람으로  
써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지 몰라요.

구영의 얼굴이 호랑이상으로 변하며

구영: 그래도 내 아버지였던 말이다!! 자식으로써 복수는 당연하지 않은가!

갑자기 피를 토하는 구영.

#17

구영: ?!

까치가 날아와 석봉의 머리 위에 올라앉는다.

구영: 복수를 한다는 것이 뭐가 나쁘단 거야!!

호랑이로 변하여 덮치려는 구영.

#18

‘탕’하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눈을 질끈 감고 있던 석봉은 살며시 눈을 뜬다.  
죽어있는 호랑이.

사냥꾼: 펜찮아유?

석봉: 아, 예 감사합니다.

죽어있는 호랑이를 보며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석봉.

까치: 안쓰러워 하지마. 이게 운명이야.

#19

눈을 뜨는 원조. 벌떡 일어난다. 깜짝 놀라는 석봉.

석봉: 이. 일어나셨어요?

원조: 아. 네.

석봉: 몸은 어떠세요?

원조: 꽤. 괜찮습니다. 정말 다 나왔어요.

#20

원조 석봉의 손을 붙잡으며.

원조: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석봉: 아닙니다. 저보다는 까치에게 고마워하세요.

원조: 까치요?

석봉: 네. 약을 구하는데 까치가 도움이 되었답니다.

원조: 그렇군요.

#21

집을 나서는 원조

사냥꾼: 벌써 가시려고요? 몸이 성치 않으실 텐데.

원조: 아닙니다. 여유부릴 시간이 없네요.

석봉: (기지개를 키며)음. 그럼 저도 가볼까요?

원조: 부탁이 있습니다.

석봉: 뭐죠?

석봉 어깨 위에 있는 하얀까치를 보며.

#22

원조: 제가 만약 급제를 하면 이 곳을 까치내라고 명해주시겠습니까?

석봉: 하. 저에게 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냥꾼: 맡겨만 주세요!

원조: (고개를 숙이고)그럼 이만,

원조의 뒷모습을 보는 석봉과 까치.



#23

석봉: 좋겠네~

까치: 좋기는 개뿔.

까치 하늘을 날아오르고 아래로 석봉과 사냥꾼, 집을 바라본다.

-당고개-

#1

매섭게 부는 바람. 눈이 허벅지까지 쌓여 있다. 그 눈을 헤치며 걸어가는 석봉. 콧물이 턱 밑까지 흘러 내려가고 있다.

석봉: 에취! 으~ 추워.(무언가를 보며)응?

석봉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을 보며 깜짝 놀란다.

석봉: 흐에에에에엑!!!

#2

석봉: (여인을 흔들며)꽤. 괜찮으세요?

여인 그저 신음 소리만 낼 뿐이다.

석봉: (여인을 엮고)빨리 어디 쉴 대를 찾지 않으면…….(눈을 감고)‘바람아. 우리가 쉴 대를 알려줘.’

뭔가를 눈치 챈 석봉은 힘을 내 걸어 나간다.

#3

문을 두들기는 석봉. 하품을 하면서 문을 여는 함씨

함씨: 누구슈?

석봉: 저기 오늘 하룻밤만 재워 주실 수 있나요?

함씨 석봉과 여인을 위 아래로 훑어본다.

함씨: 돈은?

석봉: (하늘을 바라보며)그러니까…….

문을 쿵 닫아버린다.

#4

석봉: 더럽게 매정하네.

바람이 한 번 더 석봉을 지나치고.

석봉: 길 건너편에 또 객주집이 있다고?

문을 두들기는 석봉.

#5

인자하게 생긴 노인이 문을 연다.

원씨: 누구십니까?

석봉: (애절한 눈으로)저기 죄송하지만 오늘 하룻밤만 채워주시면 안될까요?

원씨: .....(잠시 생각하더니)열른 들어오시오.

석봉: 감사합니다.

#6

물수건을 올리는 할머니.

할머니: 조금만 큰일 날 뻔 했네.

석봉: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부인?

석봉: (손사레를 치며)부인이라뇨. 우연히 길을 가다가 만났습니다.

할머니: 보통 인연은 아니구만.

석봉: 아하하.

#7

할머니: (문을 열고 나가며)불도 올려놔으니 쉬시게.

석봉: 감사합니다.

여인: 고마워요.

석봉: 무슨 말씀! 당연히 도와야죠.

여인: 정말이지. 배가 고파서.

석봉: ‘배고픈 거였어?!’

#8

밥과 국 김치, 반찬 두 개있는 밥상.

할머니: 미안하네. 이것 밖에 없어서.

석봉: 무슨 말씀을! 그럼 잘 먹겠습니다!

젓가락을 반찬에 갖다대지만 반찬이 없다.

석봉: 응?

여인: 뭐해요? 안 드시고?

석봉: 벌써 다 먹었어!!!!

#9

석봉 문을 열고.

석봉: 와아~ 오랜만에 목욕이구나.

여인과 눈을 마주치는 석봉.

여인: 어머?

석봉: (식은땀을 뺀다) 죄송합니다!!!

석봉 할머니에게 화내면서.

석봉: 안에 있다고 말씀해주셨어야죠!!

할머니: 부부 아니었어?

석봉: 아니에요!!

#10

누군가 문을 두들기고 문을 원씨가 문을 여니 함씨가 웃으면서 서있다.

함씨: 아이고 형님. 술 한 잔 어떠십니까?

원씨: 흠. 나야 좋지.

술을 마시며.

함씨: 아이고~ 형님은 그렇게 사람 좋은 게 탈이유.

원씨: 허허. 가는 사람들 바람 막아주라고 우리가 있는 게 아닌가?

함씨: 우리가 돈벌자고 이러는 거지 뭐 다르게 있습니까?

원씨: 자네는 너무 인색해.

#11

함씨: 그래서. 그 녀석들이 계속 거기서 살면 어찌려고 그러십니까?

원씨: 그러면 가족이 늘어서 좋지 않은가?

함씨: 허허. 거참.

석봉: (환하게 웃으며)술 여기 있습니다.

함씨: (비웃으며)하긴 밥값은 해야지.

석봉: (부끄러운 듯이 손으로 뒤통수를 긁으며)하하. 이거 면목 없습니다.

함씨: 그만 가봐.

#12

함씨: 그렇게 하면 오래 못합니다. 어찌시겠습니까? 좋은 가격에 저한테 넘기시는게.

원씨: 음. 오늘은 그만 물리가 주게나.

함씨: 뭐. 그러죠. 그럼 기분 좋을 때 다시 오겠습니다.

원씨: 마음대로 하시게. 오는 손님은 막지 않으니까.

함씨: ‘재수 없는 늙은이 같으니라고! 어디 두고 보자고. 곧 저 객주도 내 손안에 들어올 테니.’

#13

할머니: 갔수?

원씨: 그래.

할머니 한숨을 쉰다.

여인: 무슨 일 있으세요?

할머니: 아니다.(밥상을 들고 나간다.)

여인 안타까운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본다.

#14

석봉: (문을 열고)아~ 배고프다.

여인: (반찬을 전부 비운 채)오셨어요?

석봉: 으아아아악! 다 먹으면 어떻게요?!

여인: 여기 밥은 남겨…….

석봉: 밥만 남겨놓으면 나는 뭐 먹어요?

여인 석봉을 바라보고 있으며, 석봉은 그저 밥만 먹고 있다.

#15

여인: 저기…….

석봉: 뭐요?

여인: 고마워요. 저를 구해주셔서.

석봉: 뭐.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덕분에 이렇게 좋은 곳에서 밥도 먹고. 그나저나 삼 일 전까지만 해도 죽일 듯이 추웠는데 날이 이렇게 따뜻해졌네요.

여인: 그러게요. 근데 주인아저씨에게 무슨 일 있는 것 같아요.

석봉: 네.

여인: 그래서 말인데…….

#16

무언가를 말하는 여인. 석봉은 엄청 놀란 듯한 표정을 짓는다.

석봉: 그. 그게 사실이에요?

여인 고개를 끄덕거린다.

#17

함씨: 그러니까. 돈 없으면 나가라고!

손님: 제발. 이번 한 번만.

함씨: 이 자식이!(발로 뺨 차버린다.)

석봉: 괜찮으세요?

함씨: 뭐야? 빈대가 한 마리 더 붙었잖아?

석봉 일어서서 함씨를 노려본다.

#18

함씨: 뭐. 뭐야? 노려보면 어쩔 건데?

석봉: (씨익 웃으면서)아니여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함씨: 싱거운 녀석 같으니라고. 그리고 보니 오늘이 그 날이로구먼.

문을 발로차고 들어오는 함씨.

함씨: 형님~ 오늘. 이 객줏집 받으러 왔습니다.

#19

원씨: 흠. 벌써 그렇게 되었나?

함씨: 예. 쌀을 빌려가셨고 이자를 못 갚으셨으니, 비워주셔야겠습니다.

원씨: 알겠네.

함씨: (웃으며)그렇죠. 그렇죠.(당황하며)예? 이렇게 쉽게?

원씨: 약속이니 어찌겠나?

함씨: 하하하. 형님하고는 말씀이 통해서 좋습니다. 언제든지 놀러오십시오. 제가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원씨: 고맙네.(문을 나서는 원씨.)

#20

석봉: 여기가 맞아요?

여인: 네. 이제 헤어져야겠네요.

석봉: 뭐. 그 동안 즐거웠습니다.

선녀의 모습을 한 여인.

석봉: 어르신들은?

여인: (얼굴의 입부분만 나오고)이곳의 기운으로 대대손손 행복해 지실 거예요.

#21

석봉: (눈이 반쯤 감긴 채로)으응?

어르신들이 제사음식들을 들고 있다.

마을사람: 자네는 누구신데. 여기서 주무시나요?

석봉: 네?

마을사람: 제사 지내야 하니 비켜주시겠습니까?

석봉: 아. 예. 죄송합니다. ‘꾸. 꿈이었나?’

#22

뒤를 돌아 가는 석봉.

마을아낙1: 예전에 원씨할아버지네는 어떻게 됐데?

마을아낙2: 말도 말어. 글썽 경사가 계속 되서 용인에서 부자가 됐다고 하던데.

마을아낙1: 세상에나. 그럼 함씨는?

마을아낙2: 거기가 손님이 갑자기 뚝 끊기고 자식들도 병들어서 죽고 거지가 됐다고 하던데.

석봉 그 소리를 듣고 웃는다.

#1

야심한 밤. 안개가 짙은 산. 부엉이 한 마리가 나뭇가지 위에 올라가 있고 눈에 는 석봉이 비친다.

석봉: (지친 듯한 표정을 지으며)뎡 놈의 안개가 이렇게 짙은 거야?

#2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합소리. 잠시 행동을 멈추는 석봉.

석봉: (겁에 질린 듯한 표정으로 소리 난 쪽을 보면서)에이. 아닐 거야. 아니지. 아니야.

나무 뒤에 숨어서 보는 석봉.

#3

다섯 명의 무사가 두명씩 짝을 이루고 합을 겨루고 있다. 한 명은 넷을 지켜보고 있다.

무사: !!!

#4

무사: 누구냐?

석봉: 히익!

무사들 전부 석봉이 있는 쪽을 바라본다.

무사: (활을 겨누며)우리들을 몰래 훑쳐본다니. 죽어라.

석봉: 자. 잠시만요!!

#5

활시위를 놓고 날아가는 화살이 정확히 석봉의 심장에 맞는다.

석봉: 흐익.

살며시 눈을 뜨는 석봉. 주위에 사람들이 둘러 에워싸고 있다.

보부상: 괜찮나?

석봉: (벌떡 일어나 가슴을 만지며)살았구나.

#6

보부상: 자네. 저 산을 넘어가려고 했나?

석봉: 예. 그러던 도중에…….

다섯 무사의 얼굴이 떠올라 고개를 숙인 석봉.

#7

보부상: (웃으면서)하하하. 자넨 운이 없구만.

석봉: 예?

보부상: 밤에는 안개가 잔뜩 끼서 산을 넘어갈 수 가 없지. 낮에도 길이 험해서 길을 잃기 십상이야. 그래도 약초 캐는 사람들한테 발견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이구만.

석봉: 혹시 저 산에 귀신이 살고 있습니까?

보부상: 귀신? 글썄. 귀신보다는 신선이라는 게 낫지 않을까?

석봉: 신선이요?

보부상: 그래. 신선.

#8

보부상: 저 산을 밤에 넘어가면 갑작스런 안개에 길을 잃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그 소리가 들린 곳으로 가보면 다섯 명의 신선들이 책을 읽거나 무예를 다루는 모습을 종종 본다네. 거기에 기겁을 하고 내려온 사람들이 꽤 돼.

석봉: 그. 그렇군요.

보부상: 그나저나 큰일이야.

석봉: 무슨 일이시죠?

보부상: 우리처럼 보부상들은 장사를 해야 하는 데 저 산을 넘지 못해 먼 길을 돌아서 가야 한다네. 저 산만 넘으면 되는데. 신선들이 산을 못넘어가게 하고 있으니…….

석봉: 신선들에게 무슨 사정이 있지 않을까요?

보부상: 그걸 안다면 우리도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을 걸세.

석봉: 그럼 제가 나서보죠.

#9

문 밖을 나서는 석봉. 눈을 감고 앞으로 걸어간다. 아무것도 없는 까만 배경에 석봉만 서있고 주위의 반딧불 같은 불빛들이 여럿 돌아다닌다. 그리고 서있는 소나무.

석봉: (소나무의 손을 얹으며)저 산에 무슨 일이 있는지 가르쳐 주지 않을까?

소나무: 한이 서려 있을 뿐이야. 부탁하나 들어주지 않을까?



석봉: (눈을 뜨며)응?

#10

보부상: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선들 묘를 찾아보자고?

석봉: 예!

보부상: 우린 그거 찾을 시간 없어. 장사를 해야지.

석봉: 저 산을 넘어야 한다면서요.

보부상:(엄청 고민하는 표정을 지으며)…….

석봉: 그럼 저 먼저 갑니다.

#11

다람쥐: 글썸? 잘 모르겠는데.

석봉: 그래? 그러면 무사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야?

다람쥐: 칼 휘두르고 책읽는 사람들?

석봉: (고개를 끄덕이며)응.

다람쥐: 저쪽으로 가봐.

석봉: 고마워.

#12

이리저리 산을 헤매는 석봉.

#13

지친 듯이 앉아있는 석봉. 바로 그 때 무사 한 명이 석봉에게 나타난다.

무사: 뭐 하러 여기 다시 나타났느냐?

석봉: 여기에 묻혀졌다고 들었습니다.

무사: 그래서? 제사라도 지내주겠다는 거냐?

석봉: 그래야지 하늘로 올라가실 것 아닙니까? 신선님.

무사: 하하하하하. 신선이라니? 우리가?

석봉: (힘없이 웃으며)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 하던데요.

#14

무사: 우리가 신선이라니……. 가당치도 한낱 하찮은 귀신일 뿐이다.

석봉: (일어서며)그렇습니까?

무사: 우리들에게는 묘는 없다.

석봉: 그럼 시신이라도…….

무사: 시신은 예전에 사라지고 없지. 그냥 우리가 남은의 후예들이라고만 알아주면 된다.

석봉: 남은의 후예…….

무사: (멀리 바라보며)아무래도 걱정되서 왔나보군.

안갯속으로 다시 사라지는 무사.

#15

보부상: 젊은이~~~

석봉: 어? 아저씨.

보부상: 괜찮아? 안 오길래. 큰일 난 줄 알았어.

석봉: 고맙습니다. 그런데 안 올라오실 줄 알았어요.

보부상: 그런 말 말어. 그래도 신선들을 모른 척 할 수 없잖어. 찻찻하게.

석봉: 하하. 네.

보부상: 다른 녀석들도 찾으러 나섰어.

#16

날이 밝아오고 보부상들이 전부 모였다.

보부상: 결국 묘는 찾지 못했네.

석봉: 괜찮아요.

보부상: 그나저나……. 산에서 이런 것들을 주웠는데.

석봉: !

칼조각과 깨어진 거울, 부러진 화살과 종이, 갓이다.

#17

석봉. 무사의 말을 떠올리며,

무사: 우리들에게는 묘는 없다. 시신도 사라지고 없지…….

석봉: 아! 이거면 됐어요.

다섯 개를 묻고 제사를 지내는 석봉과 보부상들.

#18

안개가 걷히며, 사람들은 모두 감탄을 하기 시작한다.

아름다운 산의 모습.

보부상: 마. 마치 중국에 있는 과상산을 보는 것 같구만.

석봉: 주. 중국까지 갔다 오셨어요?

보부상: (멋쩍은 듯 얼굴을 붉으며)아. 아니 뭐 들은 거지.

#19

보부상: 어찌 됐든. 이렇게 안개도 걷혔으니, 이제 산을 넘어갈 수있겠구만.

석봉: (웃으며)네.

뒤따라가는 석봉. 석봉은 뒤를 돌아보며 다섯 무사들을 회상한다.

#20

관청. 자고 있는 목사. 갑자기 커다란 새의 소리가 들려온다.

목사: 이게 무슨 소리냐?

이방: 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웅장한 게 마치 봉황의 울음소리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목사: 봉황의 울음소리라……. 분명 길조임에 틀림없다.

#21

관청. 안에 보부상들이 서있었고, 목사가 앉아있다.

목사: 그래? 그런 일이 있었던 말이지? 예전에 우리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정체를 밝혀보려 했으나 결국 못알아냈었거든.

석봉: 그들이 전한 바로는 자신들이 남은의 후예라고 했습니다.

목사: 남은이라 들은 적이 있어. 개국공신이라고 들었었지. 하마터면 개국공신의 후손들을 너무 소홀히 할 뻔했군. 이 마을에서 꼭 쉬다 가거라.

보부상들: 감사합니다!

목사: 그래. 마을이름을 봉명촌이라고 하고 저 산 이름을 과상피라고 부르는 게 좋을 듯싶구나.